



여래종 종정 인왕 대중사 다비식 엄수

6월 1일 금강대약사사서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연화당 인왕 대중사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사진> 인왕큰스님 장례위원회는 6월 1일 충북 옥천군 대약사사에서 여래종 종정 인왕 대중사의 다비식을 봉행했다. 인왕 스님은 앞서 5월 28일 세 남 91세, 법랍 60세로 입적했다.

이날 다비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흥과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쇼비란타 스님, 김법열 스님, 삼릉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해광 스님, 종단 및 옥천군 관계자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흥과 스님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인왕 대중사께서는 한결같은 수행과 정진으로 여래종단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받으신 어른이셨다”며 “세상이 각박하고 혼탁한

시대에 지혜와 해안을 지닌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슬픔이 더욱 크다. 부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도 법함을 드리우시고,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원력으로 우리 곁에 나무소서”라고 말했다.

인왕 스님 초재는 금강대약사사에서 봉행했으며, 2재부터 6재, 49재는 남한산성 약사사에서 진행된다.

인왕 스님은 1958년 관음사에서 송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 인왕산 약사사, 1967년 관악산 법륜사, 남한산성 약사사를 창건했다. 1971년 대한불교법화종 중앙종도회장, 1972년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원 의원, 1974년 제2~4대 성남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한국불교여래종을 창종하고 초대종정으로 취임했다. 1995년 여래종 총본산 대한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받으신 어른이셨다”며 “세상이 각박하고 혼탁한

“아픔 다할 길 없는 그대 넋을 기리며...”

광주불교연합회, 5.18민중항쟁·세월호 추모법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를 맞아 희생 영령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광주 원각사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5월 27일 원각사 법당에서 ‘세월호, 기억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연광 스님과 미환사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지광 김동수 열사 부모, 세월호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 부모,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5.18민중항쟁 희생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식, 연광 스님의 추모사, 미환사 주지 금강 스님의 이야기 나눔, 추모시 낭송(광주 시민센터 김희용 목사), 추모공연(구름비나무, 오영목)이 진행됐다.

회장 연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도 힘들다. 다시는 우리사회에 5.18 민중항쟁과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이 생기

‘세월호, 기억과 약속’ 주제 추모의식 비롯 대중과 소통 “슬픈 사고 반복되지 않길”

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 부모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려려고 내려왔다.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살아있을 줄 믿었다. 그렇게 오늘 733일째를 맞았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전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후 불교계의 지원활동을 담담히 풀어내며 대중과 소통했다. 금강 스님은 진도사암연합회와 함께 초기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유가족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5월 27일 광주 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행사가 열린 날은 1980년 지광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산화한 날이다.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이었던 조선대학교 김동수 범우는 부처님 오신날 전남봉축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18민중항쟁이 일어나자 시민군으로 참여해,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

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쓰러졌다. 이 같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광주불교계는 매년 5월 27일에 조선대 교정에 세워진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비’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국의 그리움 이역만리서 달래다

전북불교계 봉사단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펼쳐

우리나라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생활을 돕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지역 불교계 봉사단체인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과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5월 28일 완주 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제11회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네팔·미얀마·태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중국 등 10여개국 300여 명의 노동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올해로 11회를 맞은 어울림 한마당은 완주 봉동주민들의 농악 길놀이로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와 민요, 여성 댄스그룹의 공연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속공연, 장기자랑, 우리나라 민속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잠시나마 타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랬으며 자



전북불교계 봉사단체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

전거, 주방기구, 난방기구, 식기, 기타 생활용품 등이 경품과 장기자랑 상품으로 제공됐다.

또 천천클럽 회원과 전주 풍남로터리 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들을 수집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입을 수 있도록 기증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미용 봉사, 건강상담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의 재능기부가 줄을 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는 “한국 불교단체에서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매년 참가해왔다”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느끼는 외로움을 이곳에서 달래며 명절을 맞은 것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오랜 타국 생활로 외로움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우리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연·바람의 기도’ 봉갑사 영산대재

보성 봉갑사(주지 각안)는 6월 1일 상법당 앞마당에서 ‘인연과 바람의 기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영산대재는 지난 2008년 6월 1일 미얀마에서 부처님 사리 150과를 모셔와 상법당인 12각 사방불 적멸보궁에 봉안한 것을 기념해 열린 행사다.

행사는 호남범음회의 작법식시에 이어 법문과 영가전도, 살풀이, 희심곡, 무용(구거리춤, 즉흥무, 수건춤, 산조춤), 경기민요(양산도, 밀양아리랑, 경북궁 타령), 남도민요(진도아리랑, 육자배기, 성주 풀이), 사물놀이, 보성판소리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회주 도륜 스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사암스님들과 300여 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주지 각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갑사만의 특별한 사리 봉안날에 역대조사들과 선량부모를 위한 영산대재를 여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부처님 공덕을 나누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봉갑사는 호남불교의 시조인 3갑 사찰중 하나로 최근 복원불사가 진행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군생활을”

전북 군법당 잇달아 수계법회

전북지역 군포교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와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에서 잇따라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5월 29일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 법당에서 35사단 장병들과 새로 입대한 훈련병 35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도영 스님은 군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설하고 “2년 남짓한 군 생활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군 생활동안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면서 국방의 의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군 불자들의 양성은 포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35사단 불자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계법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계법회 후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여성 댄스그룹 ‘다이하드 몬즈’가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쳐 장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편 육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도 같은 날 논산 안심정사 주지 법안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녀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수계법회에서 법안 스님은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세속오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5계를 설하고 참다운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를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